

## 20世紀 末期의 古書目錄과 版式記述 \*

Cataloging description of the style of printing blocks in the catalog for the old ancient books in the end of 20 century

金 致 雨 (Kim, Chi-Woo)\*\*

### ◁ 목 차 ▷

|                |               |
|----------------|---------------|
| 1. 序 論         | 3.1 版式의 記載 位置 |
| 2. 目錄의 種類      | 3.2 版式의 記載 順序 |
| 2.1 目錄規則       | 3.3 版式의 句讀法   |
| 2.2 古書目錄       | 4. 結 論        |
| 3. 版式記述의 類型 分析 | <參考文獻>        |

### < 초 록 >

본고는 198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즉 20세기 말기에 발간된 각종 古書目錄을 서지적인 측면과 목록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 시기에 발간된 古書目錄을 조사하여 보니 60여종이다. 이 중 25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 고서목록의 편찬에 관한 서지적인 특성과 판식의 기술에 관한 양식을 분석 검토하였다.

그중 판식기술은 형태사항의 삽도표시 다음에서 흑구와 삽도, 계선과 항자수, 광곽의 종류와 그것의 크기 순으로 돌씩 짝 지워 기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구명하여 보았다. 그렇게 하면 판식이 기존의 형태사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요어 : 판식기술

### < ABSTRACT >

This treatise was examined in the aspects of bibliographic catalog system and the physical bibliography about the catalogs for the old ancient book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end of 20 century. In this period about 60 kinds of the catalogs have been published, 25 titles out of these catalogs was selected for the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서 쓰여진 것임.

\*\*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wkim417@ks.ac.kr)

접수일: 2005년 5월 27일 최초심사일: 2005년 6월 3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sample survey and analyzed and investigate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style of printing blocks through these catalogs.

As cataloging description of the style of printing blocks in the physical matters, first of all the ways of catalog was followed the order; Heugku (黑口) and Illustration - Kyeasun (界線) and the number of Hangja (行字) - the kinds and the size of Kwangk wag (匡郭) was verified more reasonably. As a results, by describing in the previous ways of the style and the order in the physical matters in the cataloging will be harmonious with that of existing perfectly.

Keywords : Cataloging description of the style of printing blocks

K C I

## 1. 서론

고서목록은 기술의 통일성은 없으나 그 자체가 지니는 가치는 실로 크다. 그 첫째 이유는 거기에 수록된 고서는 민족의 혼이 담긴 지적 소산으로서의 자료적 가치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고서목록은 고서정리에서 기술규칙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고서목록을 수집하고, 조사하여 다각도로 분석 검토하여 보는 것은 실로 의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고려부터 1923년 이전까지는 과거의 목록, 1923년부터 1954년 이전까지는 목록규칙 도입시기, 1954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는 목록의 국제 표준화 시기, 1980년부터 현재까지는 자동화목록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古書目錄도 대개 여기에 준해서 작성되었다.

여기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하는 목록은 고서책자목록이다. 목록은 형태별로 흔히 카드목록과 책자목록으로 구분한다. 오늘날의 책자목록은 자의적으로 편찬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목록규칙과 별개로 작성된 것이 많으며, 오히려 역으로 목록규칙 제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 그래서 목록의 발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책자목록에 나타난 목록의 기술형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신서책자목록은 생략하고, 고서책자목록에 대해서만 분석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198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고서책자목록이다. 이 시기에는 실로 많은 책자목록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매품으로 발간되어서 입수하기는 물론,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다년간 그 수집에 노력한 결과 상당한 종류의 책자목록을 입수하여 서지사항을 검토하였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발간된 고서책자목록을 소개하고, 서지사항중에서 판식기술의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古書目錄規則에서 판식표시 방법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그것이 실제 적용된 고서책자목록에서의 판식표시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

작금 판식의 표시 위치를 살펴보면 형태사항과 주기사항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다 일리가 있는 방법이므로 그 한가지를 택일하여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판식과 같은 특수한 기술사항은 주로 우리나라의 고서에만 표시되는 것이므로 그 기재 위치나 방법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ISBD를 적용하여 古書目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古書目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재해야 古書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판식표시에 대해서 책자목록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실로 의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 2. 목록의 종류

### 2.1 목록규칙

1980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20세기 말기의 자동화목록 시기(이하, 20세기 자동화목록 시기)이다. 이 때에 나온 목록규칙으로는 「한국목록규칙」 3판이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등이 있다.

### 2.2 고서목록

20세기 말기의 자동화목록시기에 발간된 고서책자목록이나 고서해제목록은 자동화목록규칙을 따라서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일관성이 없고, 그 양식이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대개 판중이나 판식은 중시하여 기재하고 있다.

이 때에 발간된 고서책자목록은 조사된 바로 60종 정도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25종에 대해서는 편찬체제를 그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수록된 목록을 개씩 예로 제시하여 그 기술의 특성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예시된 목록에는 기입의 본체만을 기재하되 판식이 주기에 있는 것은 그 판식주기만을 기재하고, 기타 주기는 일체 생략하며, 청구번호가 있는 것은 목록의 맨 끝에 원괄호로 묶어서 기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머지 35종에 대해서는 고서책자목록을 이용자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편찬 연대순으로 편찬처와 서명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여기에서 예로 제시된 목록의 기술은 지면관계상 각 사항을 한 문단 형식으로 연결하여 기재하되, 별항으로 기재되는 곳은 그 앞에 “△”표를 하였다.

1. 「古書目錄」은 1979년 12월말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장본 및 탁본류, 서화류, 고문서류 등을 망라적으로 수록하여 1981년에 간행하였으며 분류목록 및 서명색인, 저자명색인, 고려대장경명색인의 순으로 편성한 것이다.

배열은 유별로 대별하고, 主題 細目下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으며 서명 및 저자명색인을 붙였다. 사용된 분류는 동국대 도서관 수정 「두이십진분류표」 16판에 의거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 저자, 판종, 판차, 출판사항, 형태사항, 총서주기, 일반주기의 순으로 하되 표목은 권두서명을 채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주기에는 서명 관련사항 외에 서문·발문·간기·내사기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262면)

清虛堂集 △ 休靜(朝鮮)著 木板 妙香山 正祖18(1794)刻[後刷] △ 4卷2冊 圖 四周單邊 半郭 20.9×14.9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上內向黑魚尾 33.6×21.6cm 線裝 (218.081-휴73 次口)

2. 「貴重圖書目錄」은 1980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귀중본 고서 3,930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른 일반 귀중본의 목록과 함께 합간하였다.

배열은 구장본과 문고별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번호에는 “貴”나 “貴中”으로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90면)

권 근 1352~1409 △ 陽村先生入學圖說 權 近(朝鮮)撰 金 稚(朝鮮)刻 木板 榮川  
[州] [明宗 2(1547)刻後刷] △ 1冊 圖 33.2 X22.1cm. △ 四周雙邊 25.9 X18.5cm.  
13行24字 上下黑口 內向2~3葉花紋魚尾 (貴 355A)

3. 「古書目錄」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서 2,277종의 목록을 수록하여 1981년 동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였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기본표목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그리고 청구번호는 목록 우측 상단의 원괄호속에 표시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30면)

이 황, 1501~1570. △ 朱子書節要 李 滉(朝鮮) 著. 明宗13(1558) △ 20卷12冊. 木板. 30.5X20.5cm. △ 四周雙邊. 半匡 : 20.7X16.8cm. 有界. 10行18字. 版心 : 上下花紋魚尾. (고 181.234 이 95)

4. 「公亮文庫」는 중화민국의 실업가인 公亮 辜振甫(꾸량 꾸전푸)가 중국학 연구발전을 위하여 5년간에 걸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공량문고 18,264책을 수록한 것으로 1982년에 발간되었다.

배열은 청구번호순으로 하였으며, 서명색인을 붙였다. 사용된 분류는 自館補正 「한국십진분류표」에 의거하였으나 본표가 중국도서를 분류하는 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부득이 유사한 항목에 분류하였다. 목록의 기입은 자관의 도서정리규칙에 따르되 표목만은 서명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3면)

藝文類聚 △ 歐陽詢(唐)撰 新興書局 民國64(1975) △ 4冊 21cm. (032.19)

5. 「庸齋文庫目錄：韓國本古書目錄」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庸齋文庫에 소장된 한국본고서 252종 2,146책에 대한 목록으로 용재문고의 다른 일반도서의 목록과 합간으로 1982년에 발간되었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서명을 無順으로 열거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18 면)

栗谷先生全書 △ 木板本 本集38卷20冊 拾遺6卷3冊 畧23冊 四周雙邊 半匡; 22.5 X16.5cm. 有界 11行20字. 上下向花紋魚尾 (811.97 이이 울-이)

6. 「古書目錄」은 1983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류 총 4,175종 19,569책에 대한 목록이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고서분류표에 의거했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214 면)

攷事新書 △ 徐命膺(1716~1787) 編. 芸閣印書體字. 校書館 英祖47(1771)刊. 15卷 7冊. 四周雙邊 半郭 22.5 X15cm.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上內向花紋魚尾. 30 X16.5cm. (C15-4)

7. 「癡菴文庫漢籍目錄」은 고 치암 申奭鎬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한 고서 288종 1,389책의 목록으로 1983년에 간행되었다

배열은 귀중서,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세분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일련번호를 주고, 서명순으로 나열하였다. 일반고서는 오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순으로 열거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四分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하였다. 권말에는 저자, 편자, 피전자, 서명, 별서명, 합간서명 등을 포함한 색인을 첨부한 것이 특징이다. 목록의 기술은 자관 古書目錄規則에 따르고 권말에 색인을 첨부하였다. 목록의 기입은 표목, 청구기호, 서명, 저자표시, 판본, 출판사항, 형태사항, 판식주기, 일반주기 순으로 기입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7면)

영조 조선제21대왕 △ 御製繪音 英祖 御製 壬辰字 芸閣 英祚52(1776) △ 1책  
32.3X20.3cm. △ 四周雙邊 21.4X13.6cm. 7行15字 上2葉花文魚尾 (B9 A3)

8. 「漢籍目錄：舊藏」은 고려대학교 소장 한적 10만여 책중 개인문고를 제외한 일반 한적 5,873종 39,000여책을 수록대상으로 하여 1984년에 간행하였다.

배열은 귀중서, 일반고서로 나누고, 동일 항목내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귀중서는 분류를 하지 않고 일련번호를 주고, 서명순으로 나열하였으며, 일반고서는 오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순으로 나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본 도서관 漢籍分類表로 四分法에 類叢書部를 추가하여 五分法으로 하였다. 권말에는 저자, 편자, 피전자, 서명, 별서명, 합간서명 등을 포함한 색인을 첨부한 것이 특징이다. 사용된 분류는 사부분류법을 자관의 실정에 맞게 개편한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분류표에 의거하였다. 목록의 기입은 자관의 古書目錄規則에 따라 표목, 청구기호, 서명, 저자표시, 판본표시, 출판사항, 형태사항, 판식주기, 일반주기순으로 하였으며 권말에 저자, 서명, 피전자명으로 된 항목의 색인을 첨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177면)

夙興夜寐箴集說 陳 栢 撰 張 福樞 編 木板 [高宗3(1895)] △ 1冊(86張) 圖 32.1 X 21.7cm. △ 四周單邊 18.7X15.5cm. 10行20字 小字雙行 內向黑魚尾 (C1-A166)

9.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은 1981년 구장서각도서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고 나서 그 이전에 이미 장서각에서 발간한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과 그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補遺篇」을 하나로 묶어서 1984년 영인으로 다시 발간한 목록이다.

전자인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은 장서각에 소장된 도서중 한국인의 저술로서 우리나라에서 刊寫된 한국판 고서 4만여책에 대한 목록으로 1972년 간행되고, 후자인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 補遺篇」은 바로 그 보유편으로 1974년에 간행되었다. 즉 장서각의 고서를 본 연구원으로 옮기기 전 장서각에서 발간한 목록과 합간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일본인의 저술일지라도 우리나라

에서 간사된 것도 모두 포함하였다. 고서 이외에도 탁본류, 서화류, 고문서류 등을 망라한 총 12,465종 40,020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중 낱장으로 된 고문서류는 제외하였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사부분류에 준하되 국학의 특수성, 본 장서의 성격 및 소장량을 감안하여 改修하였다. 목록의 기술에 있어 표목은 일률적으로 서명을 채택하고 이어서 찬자, 판종,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의 순으로 하며 서명은 권수제를 채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권말에 첨부된 색인은 서명, 찬자명, 號로 구분하여 음순으로 배열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上, 632면)

嘉林世稿 △ 趙正萬(朝鮮, 1656~1739) 編. 木板. 肅宗 30(1704). △ 3卷 2冊. 四周雙邊, 半郭 19.4×5.5cm. 有界. 半葉 10行 20字. 內向二葉花紋魚尾. 29.5×19.5cm. 線裝 (4-33)

10. 「藏書目錄：漢籍綜合篇」은 1984년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고서 22,000여 책에 대한 목록이다.

배열은 모든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기호는 상단 우측(아래 예시에서는 하단 우측)에 원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122면)

增修無言錄大全 具宅奎 增修 具允明 重訂 1796(正祖 20年) 1冊 (76長) 古活字本 (跋文, 丁酉文, 原文, 芸閣活字) 34×21cm 四周雙邊 半匡 21.6×13.8cm 10行 20字 版心 上[?]向魚尾 (고 498.9)

11.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은 1986년부터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의 개인 장서를 조사하여 편찬한 것으로 1집(대구·경북)은 1986년, 2집(충남)은 1988년, 3집(강원)은 1989년, 4집(전북)은 1990년, 5집(상·하 2책, 안동시·군)은 1991년, 6집(광주·전남)은 1992년, 7집(부산)은 1993년, 8집(경남)은 1994년, 9

집(충북·제주)은 1996년에 각각 지방별로 구분하여 출간되었다.

배열은 먼저 지역별 구분하고, 그 지역의 소장처별로 다시 세분한 다음 그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제6집, 503면)

石灘先生文集 △ 李愼儀(1551~1627)著. 木板本. 純祖1(1801)跋 △ 3卷2冊(卷上·中·下). 四周單邊, 半郭22.0×17.0cm. 有界. 半葉10行20字, 註雙行. 內向二葉花文魚尾. 30.0×20.0cm. 線裝. (서명순)

12. 「古書目錄」은 1985년 8월말 현재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장본을 대상으로 편찬하여 1987년 발간하였다.

배열은 유별로 十區分하고, 세부 주제항목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권말에는 가나다순의 서명색인과 편·저자명색인을 첨부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이다. 목록의 기술은 백린의 「古書目錄규칙」을 따르고 구두법은 ISBD에 준하였다. 목록의 기입사항은 서명, 별치도서기호, 분류번호, 편·저자명, 판종, 출판사항, 형태사항, 판식사항, 일반주기의 순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27면)

兄弟急難之圖 △ 李竣[朝鮮] 編 - 木板本 - [肅宗38[1712]] △ 1冊: 圖; 34.7×23.3cm. - 東裝 △ 四周單邊, 半郭 22.8×18.5cm. 有界. 半葉10行14字. 大黑口, 內向三葉花文魚尾. (이178.2)

13. 「漢籍目錄」은 1994년 현재 단국대학교 을곡기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장본중 羅孫文庫, 秋汀文庫, 金銘源文庫 그리고 일반 한적을 포함한 총 3,421종 5,563책을 수록하여 간행하였다.

배열은 문고별과 일반 한적별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十區分한 다음 세부 주제 항목 내에서 청구기호순으로 열거하였다. 권말에는 서명과 저자명의 통합색인을 붙였다. 분류는 「듀이십진분류표」 20판에 따르고 동양학 관계 분야는 단국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십진분류표」에 의거하였다. 목

록의 기술은 서명, 저자표시, 판중, 출판사항, 총서주기, 주기의 순으로 하고 서명은 권두서명을 채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50면)

司馬榜目 △ [編者未詳] 丁酉子本 芸閣, 純祖10(1810) 1冊(47張) 四周單邊, 半郭 25.4×18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文魚尾. 33.9×21.5 cm. 線裝. (古 353 / 육325 ㄱ)

14. 「藏書目錄 : 古書篇」은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개원 이후부터 1989년 말까지 수집·정리한 전체 고서중 동장본만을 수록 대상으로 하여 1991년에 제1집을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한국·중국·일본인에 의해 저술 또는 간사된 것을 모두 포함하며 고서 외에 고문서류를 제외한 첩본 또는 권자본으로 된 탁본류, 서화류, 가사류, 간찰류 등 총 9,704종 24,590책이 수록되어 있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분류는 전적의 특수성과 소장량을 감안, 개수한 사분법이다. 권말에는 서명색인과 인명색인을 첨부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권수제를 채기한 서명, 찬자표시, 판중, 간행사항, 형태사항의 순으로 하였다. 판본의 경우 인조년간 이전의 한국본, 임란 이전의 중국본과 일본본 그 외 활자본으로서 유일본, 희구본 등은 귀중본으로 처리하고 사본도 수화, 고지도 등을 귀중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들 귀중본과 대본, 수진본, 권자본 등에 대해서는 별치기호를 부여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제1집, 14면)

梅山先生禮說 △ 全 7卷 4冊. 洪直弼(朝鮮)著 印書體 木活字本 高宗 30(1893). △ 7卷 4冊. 四周單邊 半郭21.8 X15cm. 10行 20字 上二葉花文魚尾 30.9 X19.6cm. (A5E-71)

15. 「藏書閣圖書日本版總目錄」은 199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이관되어 있는 구장서각의 일본판 고서 총 1,205종 12,896책에 대한 목록이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별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74면)

官職知要 △ 里見(安直)編輯. 木板本, 享保(1718)刊. △ 上中下卷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18.7×13.5cm, 無界, 半葉 9行 字數不同, 註雙行. 上白魚尾. 22.4×15.6cm. 線裝 (2-207)

16. 「古書目錄」은 1993년 말 안동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장본을 수록하여 1994년에는 제1집과 그 추록을 간행하고, 2003년에는 제1집에 포함되지 않는 고서를 수록하여 제2집으로 간행하였다.

배열은 개인문고는 별치기호순으로 구분하여 분류순으로 배열하고, 일반고서는 하나의 분류순으로 하였다. 권말에는 서명과 편·저자명을 혼합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韓國十進分類法(KDC)」3판에 의거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천혜봉 저 「古書分類目錄法」을 따랐으며 구두법은 「한국목록규칙(KCR)」3판에 준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제1집, 19면)

岐陽世稿 △ 柳東嚴 編. - 木板本. -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英祖29(1753)序. △ 4卷2冊: 遺默; 32.6×21.2cm. △ 四周雙邊. 半匡; 19.9×16.3cm. 有界. 10行 18字. 註雙行. 上下白口. 上下內向. 二葉花文魚尾. (古明 810.829)

17. 「古書目錄」은 1992년 12월말 현재 충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선장본 3,250종 17,000여 책을 수록하여 1994년에 발간되었다. 분류는 동양의 전통적 사부분류법을 자관에 맞게 개편한 충남대학교도서관고서분류법에 따랐다.

배열은 귀중서와 일반고서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귀중서는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으며, 일반고서는 맨 앞에 總部를 두고, 그 다음에 경사자집의 四部를 두어 五分法으로 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

다순으로 나열하였다. 권말에는 서명과 저자명을 혼합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색인을 붙였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 별치문고기호, 청구기호, 저자사항, 판종, 간행자, 간행년, 책수, 판식사항, 일반주기의 순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353면)

知守齋集 △ 俞拓基(1691~1767)著. 全史字本. 高宗15(1878)刊 △ 15卷8冊. 四周單邊, 半郭21.4×14.8cm. 有界. 半葉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1×20cm. 線裝. (集 125)

18. 「古書目錄」은 원광대학교 도서관 소장 장서 중 동장본을 대상으로 하되 한국, 중국, 일본인에 의해 찬술 또는 간사된 것을 모두 포함하고 또 고서 이외에 탁본류 등을 포함한 총 2,588종 10,319책을 수록하여 1994년에 간행하였다.

배열은 유별로 10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자관의 분류원칙에 따라 「한국십진분류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중국의 사부분류법을 참조하여 준용하였다. 권말에 서명을 음순에 따라 배열한 서명색인을 첨부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국립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規則을 따르고 서명은 권수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111면)

노사집 △ 盧沙集 / 奇正鎭 著. - 木活字本. - △ 24卷11冊 : 四周雙邊 半郭 23\*14.8cm, 有界, 半葉10行22字 註雙行, 上二葉花文魚尾 ; 29\*18.5cm, 線裝, 楮紙 (서명순)

19.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은 전체 상·하·색인을 포함하여 모두 3책으로서 1981년 판에 대한 개정판으로 1994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간행하였으며, 이에는 규장각도서관리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중 한국에서 간행된 한국본 총 33,088종 113,820책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고서의 구성은 크게 규장각도서, 문고본고서 그리고 8·15 이전과 이후에 수집한 고도서로 나누는데 규장각도서에는 규장각 중국본 도서중의 한국본도 포함하며 문고본고서에는

일사文庫·가람文庫, 想白文庫, 經濟文庫의 고도서를 포함하였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다순으로 열거하였다. 권말에는 편·저자명색인과 서명색인을 구분하여 음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경사자집의 사부분류에 따르되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 편·저자명, 출판사항, 판식사항, 주기사항, 청구기호의 순으로 하였으며 주기사항에서는 서명관련사항, 서·발, 간기, 장서인, 내사기 등의 사항을 다루고 마지막 청구기호에서는 맨 앞에 소장분표시와 관중표시를 부호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上, 343면)

大典後續錄 △ 尹殷輔(朝鮮)等受命編. [中宗 38年(1543)] △ 6卷1冊(55張). 靑(甲寅字) 35.2×21.8cm. △ 四周雙邊. 半葉匡郭: 25.2×16.8cm. 10行17字. 註雙行. 版心: 大黑口, 上下細花文魚尾 (古貴 349.102-Y97d)

20. 「古書目錄」은 국회도서관의 開院 으로부터 1994년 12월말까지 수집, 정리한 소장 자료중 주로 東裝本 형태의 고서 2,787종 13,962책을 모아서 1995년에 간행한 것이다.

배열은 貴重書와 稀覯書 를 권두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서를 경사자집의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순으로 열거하였다. 권말에는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서명과 인명을 통합하여 음순으로 배열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두이십진분류표」와 자관의 「東洋關係細分展開表」에 준하였다. 목록의 記述은 서명, 撰者表示, 版種, 간행사항, 형태사항의 순으로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104면)

六典條例 △ 高宗(朝鮮 26代王) 命編. 木活字本, 高宗3(1866) △ 10卷 10冊. 四周單邊, 半郭 21.4×14.8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白魚尾, 29.5×19.5cm. 線裝. (古 342 ○ 439)

21. 「古書目錄」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에서 소장한 646종 3,204 책을 수록한 목록으로 1995년에 간행하였다.

배열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국별로 구분하고,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했다. 권말에는 서명색인과 인명색인을 붙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39면)

五倫行實圖 / 正祖 命 ; 李秉模 [等]奉命撰 ; 金弘道 畫. - 朝鮮木板本(整理字本覆刻). - [刊地未詳] : [刊處未詳], 哲宗10(1895). △ 4卷4冊(零本) : 挿圖 : 上一下向黑魚尾, 界, 10行20字, 四周雙邊, 內邊21.5 X13.9cm ; 28.2 X17.8cm. (古911.058-2)

22. 「霞城文庫目錄 : 古書目錄」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화성문고에 소장된 고서 414종에 대한 목록으로 그곳에 소장된 다른 도서의 목록과 함께 1993년에 동연구원과 하성학술재단에서 합간하였다.

배열은 청구기호순으로 하였다. 권말에는 저자명색인과 서명색인을 첨부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경사자집 사분법에 의했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527면)

唐柳先生集, 全 卷 冊 △ 柳宗元(唐) 著. △ □□, 世宗16(1434). △ 1冊(缺本). 四周單邊. 上下黑魚尾. 34.7 X21.9cm. 初鑄甲寅字本. (D3C.63)

23.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 美國 Berkerey大學 東亞圖書館 Asami文庫」는 그 문고에 소장된 한국본고서 839종 4,013책과 한국탁본 155종에 대한 목록으로 1996년에 한국서지학회에서 발간되었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47면)

宗親府條例 △ 李昉應(1821~1898)等編. 全史字版. 高宗7(1870)印. △ 1卷 1冊. 四周單邊, 半郭 21.3 X14.8Cm, 有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上白魚尾. 30.1 X 20Cm. 線裝. 楮紙. (18.31)

24.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韓國本 目錄」은 본 내각문고에 소장된 한국본고서 209종 2,455책에 대한 목록으로 1998년에 한국서지학회에서 발간하였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24면)

己卯錄 △ 申翌(明宗 ~ 宣祖朝)編. 木板. 順天府, 宣祖16(1583)刊. 不分卷 1冊. 四周單邊, 半郭 20.7×16.5cm, 有界, 半葉 10行 16字. 內向黑魚尾. 大黑口. 30.5×20.8cm. 線裝(日 五針改裝). 劣品楮紙 (290-77)

25. 「범어사소장 전적 및 유물」은 1999년 범어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고서 1,296종과 유물 348종에 대한 목록으로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발간되었다. 전적은 묘법연화경 184종, 대방광불화엄경 87종, 대장경 43종, 기타 전적 981종으로 모두 1,296 종이다

배열은 법화경, 화엄경, 대장경 등 10개의 관용서명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목록의 기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同目錄, 163면)

維摩詰所說經 △ 鳩摩羅什 譯. - 木板本. 鐵原(寶蓋山) : 聖住庵, 哲宗5(1854) △ 3卷3冊, 線裝 : 圖 3張 : 上一下向白魚尾 界線, 10行20字. 四周單邊, 內邊郭 21.0×14.7cm ; 30.1×20.2cm (고633)

기타 1980년 이후 2000년 이전에 발간된 고서책자목록은 조사한 바로는 모두 35종이 된다. 그중 32종은 1980년 이후에 새로 발간된 것이고, 3종은 1980년 이전에 발간되어 그 이후에도 계속 된 것이다. 그 기술형식은 모두 위의 표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먼저 1980년 이후에 발간된 古書目錄은 아래와 같다.

(1) 1980년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의 「補訂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2) 1980년에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貴重圖書目錄」. (3) 1980년에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藏書目錄：漢古籍篇」. (4) 1981년 서울시립남산도서관의 「藏書目錄 古書解題篇」. (5) 1981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의 「南基拓先生寄贈圖書目錄」. (6) 198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農林水産 古文獻 備要」. (7) 1984년 향문사의 「韓國食經大典」. (8) 1985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의 「漢籍目錄綜合索引」. (9) 1987년 서울대학교의 「韓醫藥書考」. (10) 1987년 보경문화사의 「古書目錄」 2책. (11) 1987년 국사편찬위원회의 「國史館開館紀念 史料展示會 및 解題」. (12) 198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日本訪書志」. (13) 1990년 법경출판사의 「알기 쉬운 옛책풀이」. (14) 1990년 여강출판사의 「日本所在韓國古文獻目錄」. (15) 1990년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 (16) 1990년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古漢籍解題」. (17) 1991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의 「日本所在韓國典籍目錄」. (18)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拓本目錄」. (19) 1992년 경주문화원의 「경주지방고서조사목록」. (20) 1992년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光州圈文集解題」. (21) 1993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22) 199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圖書韓國本解題集」. (23) 1994~96, 2000~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奎章閣圖書韓國本圖書解題：속집」 1집~6집, 7집~9집. (24) 1994년, 2003년 안동대학교 도서관의 「古書目錄」 1집·고서목록 추록, 2집. (25) 1995년 보경문화사의 「한국의 책판목록」 상, 하, 보유색인 3책. (26) 1995~199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奎章閣所藏文集解題」 1~4. (27) 1995~96년 아단문고기획실의 「아단문고장서목록」 I, II. (28) 1996년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한적목록」. (29) 1996년 법인문화사의 「韓國本別集目錄」. (30) 1997년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全南圈文集解題」 I~II. (31) 1997년, 1999년, 2000년 충북향토문화연구소의 「충청북도의 고서」 1집, 2집, 3집. (32) 1998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嶺南文集解題」. (33) 1999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의 「東洋學研究所 藏書目錄」. (34) 199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古小說解題」. (35) 1999년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의 「樂育齋古書圖錄」 등이다.

먼저 표본으로 제시한 고서목록 25종과 위에서 간략식으로 제시한 고서목록 35종, 모두 60종으로 다음과 같이 39개의 간행처에서 발간되었다.

(1)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2)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3)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1종. (4) 경주문화원 ⇒ 1종. (5)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6)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6종. (7) 국사편찬위원회 ⇒ 2종. (8) 국회도서관 ⇒ 1종. (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1종. (10)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 1종. (11) 대구시립중앙도서관 ⇒ 1종. (12)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13) 문화재관리국 ⇒ 1종. (1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1종. (15) 법경출판사 ⇒ 1종. (16) 법인문화사 ⇒ 1종. (17) 보경문화사 ⇒ 2종. (18) 부산시립시민도서관 ⇒ 1종. (19) 서울대학교 규장각 ⇒ 4종. (20)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1종. (21) 서울대학교 출판부 ⇒ 1종. (22) 서울시립 남산도서관 ⇒ 1종. (23) 아단문고기획실 ⇒ 1종. (24) 안동대학교 도서관 ⇒ 2종. (25) 여강출판사 ⇒ 1종. (2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종. (28)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29) 원광대학교 도서관 ⇒ 1종. (3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2종. (31)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2종. (32)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33)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 1종. (34) 충남대학교 도서관 ⇒ 1종. (35) 충북향토문화연구소 ⇒ 1종.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종. (37) 한국서지학회 ⇒ 2종.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9종. (39) 향문사 ⇒ 1종

그리고 1980년 이전에 발간되어 2000년 이전까지 계속된 古書目錄으로는 아래와 같이 3종이 있다. 이런 목록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미 발표된 바 있는 “20세기 중기의 고서목록과 판본기술”에서 다루었다.

(1) 1980년, 1994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 5집, 6집. 그 이전에 1집은 1970년, 2집은 1971년, 3집은 1972년, 4집은 1973년에 간행된 바 있다. (2) 1983년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의 「장서목록 : 고서해제편」 2집. 그 이전에 1집은 1970년에 간행된 바 있다. (3) 1987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 2집. 그 이전에 1집은 1977년에 간행된 바 있다.

### 3. 판식기술의 유형 분석

#### 3.1 판식의 기재 위치

판식이란 광곽의 종류와 그 크기, 계선과 향자수, 흑구(백구)와 어미 등 6개를 말하는 것으로 형태사항이나 주기사항에 표시한다.

판식을 형태사항에 하는 이유는 그 판식이 고서의 이판을 식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식을 기술의 본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식을 주기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은 그것이 일반목록규칙에는 없기 때문이다.

##### 3.1.1 형태사항에서의 판식기재

고서목록의 형태사항에서 판식이 기재되는 곳은 거의 삽도표시와 도서의 크기 표시 사이, 즉 형태사항의 중간이며, 드물게 형태사항의 맨 마지막에 기재되기도 한다. 그 기재순서는 대개 광곽의 종류와 그 크기, 계선, 향자수, 흑구 및 어미의 차례로 하며, 일부 고서목록에서는 이와 반대로 흑구와 어미, 계선과 향자수, 광곽의 종류와 그 크기의 차례로 하거나 또는 이를 절충한 형태로 하기도 한다.

먼저 판식이 형태사항의 중간에 기재되는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부터 살펴보자. 이러한 목록으로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5), 국사편찬위원회(6), 한국정신문화연구원(9, 14, 15), 문화재관리국(11),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13), 충남대학교 도서관(17), 원광대학교 도서관(18), 국회도서관(20), 부산시립시민도서관(21), 한국서지학회(23, 2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25) 등에서 발간된 목록들이 있다. 그 뒤에 있는 괄호속의 數字는 “2. 2책자목록”에서 각 목록을 소개할 때 붙인 번호이다.

판식을 형태사항의 삽도와 도서의 크기표시 사이에 기재된 목록으로 제일 오래된 것은 1970년에 간행된 국립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1집)』이다. 이 목록

은 2집부터 6집까지도 거의 같은 양식으로 편찬되었다. 그 기재위치는 형태사항의 삽도와 도서의 크기표시의 사이이다. 이것이 판식기재 위치의 주류를 이룬다. 이 영향을 받아 고서책자목록은 물론 古書目錄規則까지도 판식기재를 형태사항의 복판에 기재하고 있다.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1969년 후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고전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 고서의 목록을 작성할 때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약 16만 책에 달하는 고서를 수장하고 있었으나 판종을 식별할 만한 서지사항을 갖춘 목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목록작성에 사용된 규칙은 박봉석 편 「(朝鮮)東書編目規則」으로 판식을 기재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장목록에서 미비하였던 서지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목록을 작성키로 하고 古書目錄規則의 시안을 만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그것으로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 시안은 필자가 고서계에 근무하고 있을 때 만들었으며, 요점은 1970년 6월 「도서관」에 발표되어 있다. 그 중 판식표시의 기재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현재 관용되고 있는 판식표시의 위치를 (a) 주기사항에 표시하는 것(백린 편 「古書目錄規則」), (b) 대조(형태)사항에 표시하는 것(천혜봉저 「古書目錄에 있어서의 當面한 諸問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목록을 통일하는 의미에서 후자는 古書目錄의 특수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일리 있는 주장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판식표시는 古書目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로 이판본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어느 고서에나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a)와 같이 주기사항에는 넣을 수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판식표시는 대조(형태)사항에 하기로 하였다.

Magaret Mann의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the classification of books」에는 <서지적인 가치가 있는 희구서는 대조(형태)사항 각항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판식표시는 희귀한 도서의 목록이므로 형태사항에 표시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표시위치는 삽도사항 다음에 표시키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삽도나 판식은 다 같이 도서 내부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접근시켜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기입순서와 기입례는 「도서관」보에서 예시하였다. 기입순서는 형태사항에서 사주변란(광곽) 및 광곽의 크기, 계선, 항자수, 흑구 및 어미의 순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입례에는 저자기본기입, 서명기본기입, 통일서명 기본기입, 주기사항 및 그 출처 등 4종의 목록카드 양식을 제시하여 판식의 기재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그중 저자기본기입목록에 나타난 판식기재 양식의 實例를 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김 조순, 1765-1831 △ 楓臯集 (朝鮮)金 祖淳 著, 金 在根 編. 古活字本(整理字)  
[1854] △ 16卷18冊. 四周雙邊, 半郭 22.5 X15.6cm. 10行20字, 註雙行. 上黑魚尾  
33cm △ 跋: 上之五年(1854)…趙斗淳

이것이 판식기재가 형태사항의 중간에 되어 있는 최초의 예이다. 그 후 이 기재 방법은 각종 古書目錄作成이나 古書整理規則에서 두루 적용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시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古書目錄史에서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 판식기재 방식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미 1969년부터 고서 카드목록 작성에서 처음 적용되었고, 1970년 말에 이 카드목록을 편집하여 「古書目錄」(1집)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형태사항의 마지막에 기재되는 도서의 크기는 처음 규정을 정할 때에는 높이를 cm단위로 기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목록작성시에는 높이와 폭을 mm단위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성된 카드목록은 1971년 「古書目錄(2집)」, 1972년 「古書目錄(3집)」, 1973년 「古書目錄(4집)」, 그리고 1980년 「古書目錄(5집)」까지 책자목록으로 간행되었다. 그 후 1994년 「古書目錄(6집)」부터는 다른 정리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그 이전 규정과 대동소이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정리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판식기재를 형태사항에 할 경우에는 그것의 맨 마지막에 하였다. 이 방식은 당시 도서관에서 카드목록을 작성할 때 사용한 곳은 있으나 고서책자목록으로 발간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판식을 형태사항의 중간에 기재하는 고서목록은 21세기 이후에도

아주 많이 작성 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판식을 기재하지 않는 목록도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4)의 목록이 그러하다. 이런 類의 고서목록이 다소 발간된 것이 있으나 그 활용이 원할치 못하다.

이번에는 판식이 형태사항의 끝에 기재되는 사례가 있는지 간단히 고찰하여 보자. 이러한 목록으로 20세기 말기에 편찬된 것은 보지를 못했고, 그 이전인 1979년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기은박물관수도서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목록에서는 판식을 형태사항 뒤에서 광곽의 크기, 계선, 향자수, 어미, 광곽의 종류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형의 양식이 아니므로 별로 검토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 외에 판식을 주기사항에 붙여야 한 것을 형태사항의 뒤에 붙인 목록이 2종이 있다. 그 하나가 1984년 간행의 「藏書目錄：漢籍綜合編」으로 여기에는 판식이 형태사항의 끝에 붙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면관계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목록의 모든 기술양식이 서울대학교의 각종 古書目錄類와 아주 동일한데도 판식기재를 형태사항 맨 끝에 붙여주고 있는 것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고서목록이나 규장각에서 발간된 각종 고서목록류 모두가 판식을 주기사항에 기재해주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고서목록은 20세기 중기인 1967년에 간행된 「澗松文庫漢籍目錄」이다. 여기에도 판식이 형태사항의 끝에 붙어있으나 이 역시 지면관계상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 3.1.2 주기사항에서의 판식기재

古書目錄의 주기사항에서는 판식을 기재하는 위치는 대개 맨 처음의 주기사항이지만 형태사항에서 하는 것과 기재순서와 방법은 비슷하다. 즉, 광곽의 종류 및 그 크기, 계선, 향자수, 흑구 및 어미의 순서로 한다.

먼저 판식이 주기사항에 기재되는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을 살펴보자. 이러

한 목록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2, 7, 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3),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10),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12), 안동대학교 도서관(16),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19) 등에서 발간한 것들이 있다. 이곳의 괄호 속에 부기된 數字는 “2. 2 책자목록”에서 표본으로 제시한 목록의 번호이다. 이 중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의 장서목록에는 판식이 형태사항의 끝에 붙어 있으나 지면관계상 그렇게 하였다고 이미 전술한 바 있다.

고서목록에서 판식이 주기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오래된 것은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1965년에 간행된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프린트판)과 1966년에 간행된 「일사·가람文庫 古書著者目錄」(프린트판) 등이다. 그러므로 판식기재를 주기사항에 하는 것이 형태사항에 하는 것보다 먼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규정한 규칙으로는 백린 편 「古書目錄規則」이 있다.

그 후 1971년 동아문화연구소의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이나 1980년 동연구소의 「(補訂)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그리고 1994년 규장각의 「(수정판)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도 역시 판식을 주기사항에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식을 주기사항에 기재하는 고서목록은 21세기 이후에도 적지 않게 작성 발간되고 있는 실정이다.

## 3.2 판식의 기재 순서

### 3.2.1 광곽의 종류부터 기재

판식을 형태사항에서 기재하든지 아니면 주기사항에서 기재하든지 대부분 “광곽의 종류와 그 크기, 계선, 향자수, 흑구, 어미” 등의 순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광곽의 종류부터 기재하는 것은 포괄적인 것부터 판식을 기재하는 것이 된다. 포괄적이라 함은 단위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순으로 판식을 기재한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2, 7, 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3),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5), 국사편찬위원회(6), 한국정신문화연구원(9, 14, 15), 건국대학교 중앙도서관(10), 문화재관리국(11),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12),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13), 안동대학교 도서관(16), 충남대학교 도서관(17), 원광대학교 도서관(18), 서울대학교 규장각(19), 국회도서관(20), 한국서지학회(23, 24) 등에서 발간한 목록들이 그러하다. 뒤의 괄호속에 부기된 수자는 “2. 2 책자목록”에서 표본으로 제시한 목록의 번호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방법으로 판식을 기재하지만 1995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霞城文庫目錄 : 古書目錄』에서는 부분적으로 광곽과 어미만 기재한 목록도 있다. 물론 판식을 포괄적으로 기재하지만 아주 다른 방식으로 기재하는 목록도 있다. 그런 목록은 너무 예외적이어서 설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면 판식을 형태사항에서 “광곽의 종류, 그 크기, 계선, 향자수, 흑구, 어미” 등의 순으로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여 보자. 원래 판식을 형태사항에서 기재할 경우는 도서의 크기 다음에서 附記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태사항과 판식기재를 단순하게 접근시켜서 양자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그 판식을 형태사항과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 도서의 크기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광곽의 종류부터 접근시켜서 기재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원래는 이렇게 판식을 형태사항의 뒤에 기재하다가 후에 판식은 도서 내부 사항이라고 하여 그대로 삽도표시 다음으로 옮겨서 기재하게 되었다. 지금 상당수의 고서목록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이제 좀 再考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원적 체제로 되어서 기존의 형태사항과 불연속적인 감을 주기 때문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광곽의 종류는 삽도표시와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 서로 접근하여 기재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련성 있는 것끼리 접근시켜 기재를 해야만 기존 형태사항과 원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3. 2. 2 흑구 및 어미부터 기재”에서 상세히 설명코자 한다.

## 3.2.2 흑구 및 어미부터 기재

판식의 기재는 흑구나 어미 등의 세부적인 것에서부터 기재하는 고서목록들이 있다. 세부적인 것부터 기재한다함은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목록으로 20세기 말기의 것은 1987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제2집)」, 1995년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고서목록」, 1999년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범어사 소장 전적 및 유물」 등이 있다. 이중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제2집)」은 그 제1집이 1977년에 간행되어서 “20세기 중기의 고서목록과 판본기술”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그 목록의 기술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同目錄, 제2집, 250면)

김방걸 △ 芝村先生文集/ 金邦杰. - 崇禎紀元四乙丑[1805]開刊 [木板本]. - 4 卷冊 ; 31cm △ 手書刻書: 前兵曹參判 柳致明謹序 △ 10行18字: 上下內向花紋魚尾, 界線, 四周雙邊 ; 183 X157mm

아주 특색 있는 판식주기로 완전히 형태사항에 준해서 판식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즉 항자수는 권책수(장수)에, 魚尾와 界線과 匡郭의 종류는 插圖에, 匡郭의 크기는 도서에 크기에 해당되게 기재하여서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또 판식주기의 위치도 맨 앞이 아니고 각 주기의 해당 위치에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판식을 세부적인 것에서 포괄적인 것으로 기재하는 고서목록으로는 이미 20세기 중반기에 발간된 1969년 「李朝書院文庫目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목록에서는 판식을 흑구(백구), 어미, 광곽의 종류, 계선, 항자수, 광곽의 크기 순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방법은 1995년 발간의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古書目錄」이나 1999년 간행의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범어사 소장 전적 및 유물」에서 판식기재 순서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두 목록에서는 판식의 기재를 흑구, 어미, 계선, 항자수, 광곽의 종류, 그 광곽의 크기 순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판식을 기재하면 기존의 형태사항과 원만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의 형태사항과 불연속적으로 이원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형태사항은 주지하다시피 면책수, 삽도, 도서의 크기로 구성된다. 이중 삽도는 흑구 및 어미와 연관성을 갖고, 도서의 크기는 광곽의 종류 및 그 크기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면 흑구나 어미는 삽도표시 바로 다음에 기재하면 된다. 그 이유는 흑구나 어미는 삽도표시와 불과분의 관계에 있는 文樣으로 繪畫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곽의 종류와 그것의 크기는 도서의 크기표시 바로 앞에 기재하면 된다. 광곽의 크기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크기를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광곽의 크기와 도서의 크기는 전후 관계가 되어 아주 이상적이다. 광곽의 크기는 서지적 크기며, 도서의 크기는 물리적 크기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광곽의 크기는 內며 本이고 불변적이며, 도서의 크기는 外며 末이고 가변적이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광곽의 크기를 더 중시하여 그것만 기재하고 도서의 크기는 생략하는 수도 있다<sup>1)</sup>. 이처럼 양자는 주종의 관계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접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양자를 접근시키면 목록작업시에도 편리하다. 그 까닭은 일단 광곽의 크기를 재어 주기 위해서 자(尺)를 한번 들면 놓지 않고 바로 이어서 도서의 크기까지 재어 주게 되므로 능률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 계선과 향자수는 삽도나 도서의 크기와 다소 거리가 멀므로 판식기재의 중간에 오도록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판식을 기재하면 흑구, 어미, 계선, 향자수, 광곽의 종류, 그 크기 순으로 된다. 즉 “광곽의 종류, 그 광곽의 크기”와 “흑구, 어미”의 순서가 바뀐 것이 된다. 이렇게 하면 형태사항과 판식표시는 완전 일원화가 되며, 판식의 중요도 순과 거의 정비례가 된다. 귀중본 여부를 구명하는데 있어서 판식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흑구이며, 그 다음이 어미와 계선이며, 향자수나 사주변란은 귀중본 지정에는 별로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1) 李春熙 編, 『李朝書院文庫目錄』(서울: 國會圖書館 1969), 參照

이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면 판식의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되어 이상적이다. 또 이렇게 기재하면 삽도부분과도 조화를 이루게 되어 좋다. 그 이유는 한쪽에 삽도가 있고, 중간에 흑구와 어미가 있으며, 다른쪽에 계선과 항자수가 있고, 그 주변에 사주변란(광곽의 종류)이 있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형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판식은 형태사항과 독립시켜 별도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형태사항에서 다루게 될 때는 삽도와 불연속적으로 되어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古書目錄처럼 삽도 다음에 사주변란을 기재하게 되면 양자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불연속적으로 이원화된 감을 주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항자수는 면장수를 이루는 기본요소로서 권책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sup>2)</sup> 비도서자료목록에 의하면 필름의 positive(양화)나 negative(음화)는 문자의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面張·卷冊數의 다음에 기재되는 삽도사항의 위치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고서의 항자수도 삽도사항 다음에 포함시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광곽의 크기는 도서의 크기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크기사항에 포함시켜서 기재하여도<sup>3)</sup> 별 무리는 없을 것이나 그것은 서지적인 판자체의 크기이지 물리적인 도서자체의 크기는 아니므로 삽도사항 다음의 판식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판식기재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어떤 판식이 없다고 해서 “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어미가 없으면 “무어미”, 계선이 없으면 “무계”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인 것으로 목록의 이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태사항에는 원래 없으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서목록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만일 판식에서 계선이 없어서 “無界”라고 기재한다면 형태사항의 삽도표시에서 그것이 없으면 “無插圖”라고 기재해야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될 것이다.

2)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錄(第2輯)」(서울: 同圖書館, 1987), 參照.

3)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目錄(第2輯)」(서울: 同圖書館, 1987), 參照.

### 3.3 판식사항의 구두법

지금까지 기재위치와 기재순서를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면 판식사항의 구두법을 검토하여 보자.

구두법이란 구두점의 용법을 정한 규정이며 구두점이란 글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찍는 단어, 어구, 문장 뒤에 찍는 부호를 말한다. 여기서 구(句)란 문장의 뜻이 끝나는 곳을 말하고, 두(讀)란 그 중간에서 말이 그치는 곳을 말한다. 기존의 고서목록에서는 후미적인 성격의 구두점을 부여하였다. 상당수의 고서목록뿐만 아니라 앞의 예시에서 표본으로 제시한 25종의 고서목록 중 19종의 목록도 그러하다.

그러나 ISBD 이후의 목록에서는 이러한 후미 구두법에 선행 구두점이 가미되어 있다. 그러한 고서목록으로 20세기 말기의 것은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12), 안동대학교 도서관(16), 원광대학교 도서관(18), 부산시립시민도서관(21),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25) 등에서 간행한 것이 있다. 여기서 괄호속에 부기한 번호는 “2. 2 책자목록”에서 표본으로 제시한 목록의 번호이다.

이중 나중 두 곳(21, 25)의 고서목록을 제외하고는 판식에서까지 선행부호를 사용한 고서목록은 없다. 다른 기술사항에서는 설령 ISBD의 부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판식을 삽도사항에 예속되게 기재하여 삽도가 없을 경우에만 쌍점이 판식기재 앞에 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판식을 나타내는 부호가 아니라 삽도를 나타내는 부호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시립시민도서관과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목록은 판식에서까지 ISBD의 부호를 사용한 목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목록은 심도 있게 검토해볼 목록이라고 생각한다.

판식에서 선행부호를 사용하자면 부득이 형태사항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준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태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판식표시를 형태사항에 하든지 주기사항에 하든지 사용하는 구두법

은 대동소이하다. 판식을 주기사항에 하는 경우에는 별항으로 시작하면 그 앞에 사용하는 구두법이 없으나 형태사항에 표시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삼도표시 다음에서 기재해주므로 그 앞에 오는 부호가 있다.

그러면 개별 판식사항의 기술과 구두법을 하나하나 연관지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 판식사항은 광곽의 종류, 그 광곽의 크기, 계선, 항자수, 흑구, 어미 등 모두 6개이다. 이것을 順으로 기재하면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기재하는 것이 되고, 逆으로 기재하면 세부적인 것에서 기재하는 것이 된다.

### 3.3.1 포괄적인 것에서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에서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기재되는 판식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광곽의 종류, 그 크기, 유계, 항자수, 흑구, 어미의 순으로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먼저 형태사항에서 이러한 순서로 판식이 기재되는 고서목록의 실례를 살펴 보자.

4卷2冊 圖 四周單邊 半郭 20.9 X14.9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上內向黑魚尾 33.6 X21.6cm 線裝 (1.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15卷8冊. 四周單邊 半郭21.4 X14.8cm. 有界 半葉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31 X20cm. 線裝. (17.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의 목록에서는 일체의 구두법을 생략하였으므로 판식에서도 생략되었다. 이렇게 고서목록에서 구두법을 일체 생략하는 목록은 가끔 볼 수 있다.

그 뒤의 목록에서는 광곽의 크기, 계선, 소자의 항자수(註雙行)와 어미 다음에서는 마침표를 하고, 광곽과 본문의 항자수 다음에서는 마침표를 하였다. 광곽 다음에 쉼표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유계인 계선 다음에는 마침표를 많이 사용하나 쉼표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 계선과 항자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계선 다음에는 쉼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주기사항에서 이러한 순서로 기재되는 고서목록의 판식을 좀 살펴 보자.

四周雙邊. 半匡 : 20.7×16.8cm. 有界. 10行18字. 版心 : 上下花紋魚尾. (3. 이화여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四周單邊, 半郭 22.8×18.5cm. 有界. 半葉 10行 14字. 大黑口, 內向三葉花文魚尾. (12. 계명대학교 중앙도서관)

먼저의 목록에서는 모두 마침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목록도 다소 있다 이렇게 하면 판식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감을 주어서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

그 다음의 목록에서는 광곽의 크기, 계선, 항자수와 어미 다음에는 마침표를 하고, 광곽과 흑구 다음에서는 쉼표를 하였다. 이렇게 구두법을 부여하는 목록이 대체적으로 많다.

2. 광곽의 종류, 그 크기, 무계, 항자수, 흑구, 어미의 순으로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上中下卷 3冊. 圖. 四周單邊, 半郭 18.7×13.5cm, 無界, 半葉 9行 字數不同, 註雙行. 上白魚尾. 22.4×15.6cm. 線裝.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四周雙邊 25.9×18.5cm. 13行24字 上下黑口 內向2~3葉花紋魚尾 (2.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의 목록에서는 형태사항에서 판식을 기재하며, 無界인 경우는 기재하고, 유계인 경우는 생략하였다. 사용 구두점을 보면 광곽의 크기, 항자수와 어미 다음에서는 마침표를 하고, 광곽, 계선 및 본문의 항자수 다음에서는 쉼표를 하였다.

그 뒤의 목록에서는 주기사항에서 판식을 기재하는데 유계인 경우는 생략하지만 무계인 경우는 기재하므로 앞의 목록과 기재순서는 같다. 사용구두점은 광곽의 크기에서만 마침표를 하고 기타 판식사항에서는 일체 생략하였다.

3) 광곽, 흑구, 어미의 순으로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1冊(缺本). 四周單邊. 上下黑魚尾. 34.7 X21.9cm.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 목록은 판식을 형태사항에서 기재하는 것으로 사주변란과 어미 두 개만 기재하고 사용구두법도 마침표만 사용한 아주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 3.3.2 세부적인 것부터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이번에는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에서 세부적인 것에서 기재되는 판식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흑구, 어미, 계선, 향자수, 광곽, 그 크기의 순으로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4卷4冊(零本) : 插圖 : 上一下向黑魚尾, 界, 10行20字, 四周雙邊, 內邊 21.5 X 13.9cm ; 28.2 X17.8cm. (21. 부산시립시민도서관)

3卷3冊, 線裝 : 圖 3張 : 上一下向白魚尾, 界線, 10行20字, 四周單邊, 內邊郭 21.0 X14.7cm ; 30.1 X20.2cm. (25.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위의 두 목록에서는 판식은 모두 형태사항의 삼도표시 다음에 기재되고 있다. 기재 형식이나 순서는 거의 동일하다.

먼저의 목록에서는 판식에서 魚尾를 쌍점을 앞세워 기재하고 나머지 판식은 쉼표로 구분하였다. 그래서 좀 장황한 감을 주고 있다.

그 다음의 목록에서는 어미를 역시 쌍점을 앞세워 기재하였으나 어미와 향자수 다음에는 마침표를 하고, 계선과 사주변란 다음에는 쉼표를 하고 유사성이 있는 판식끼리 모아주고 있어서 아주 체계적인 감을 준다.

이상과 같이 판식을 형태사항에서 기재하는 것은 고서의 특성을 강하게 살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자면 적절한 구두점을 잘 사용해야만 한다. 특히 판식

을 형태사항에서 기재하는 古書目錄은 삽도와 구별되는 구두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구두법이 바로 쌍점이다. 그렇다고 형태사항에서 사용되지 않는 부호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쌍점은 삽도에 앞세워 사용하는 구두법으로 판식의 첫머리에 앞세워 사용하면 그것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성격이 된다. 물론 ISBD에는 그런 규정은 없으나 필요한 경우 그것을 반복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비도서 자료목록에서 슬라이드의 용기의 모양과 크기를 기재할 경우 크기 다음에서 다시 반쌍점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기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특히 판식에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는 고서의 특성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판식에 쌍점을 앞세워 기재하면 판식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삽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 古書目錄은 우리가 주도해야 할 목록이므로 이런 방법으로 구두점을 부여하여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판식은 古書目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쉽표를 앞세워 기재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즉 판식은 古書目錄에만 있는 것이므로 구두법도 독립성을 가지는 구두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판식에는 쌍점을 앞세워 기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판식은 6개로 구성되므로 두 번째 이하의 판식에는 마침표나 쉽표를 앞세워 기재하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재되는 판식사항은 어느 것이나 쌍점을 앞세워 기재하고, 두 번째부터 기재되는 쉽표나 마침표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광곽의 종류, 광곽의 크기, 계선, 항자수, 흑구, 어미의 순으로 기재하면 광곽의 종류 앞에, 또 흑구, 어미, 계선, 항자수, 광곽 종류, 그 크기 순으로 기재한다면 흑구 앞에 쌍점을 앞세워 기재하면 된다.

이때 광곽의 종류나 흑구 앞에서 사용되는 쌍점은 판식의 전체를 대표하는 구두법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하의 판식사항 앞에 사용되는 부호는 그 성격에 따라서 연결성이 있으면 쉽표를 사용하고, 독립성이 있으면 마침표를 사용하여도 맨 앞의 부호인 쌍점의 영역에 종속되는 부호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의 판식에 구두점을 부여할 때 6개의 판식을 같은 사항이라고 하여 모

두 쉽표를 사용하면 너무 길어 보여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6개 모두 마침표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개별성이 강하여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관성 많은 것은 쉽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마침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마침표는 어떤 사항이 끝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항이 길어질 때도 사용하는 부호이므로 판식기재에도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것이다.

6개의 판식 중 연관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광곽의 종류와 그 광곽의 크기, 계선과 향자수, 그리고 흑구와 어미이다. 그러니까 이들 3개를 각각 한 묶음으로 보아 광곽의 종류, 계선, 흑구표시 다음에는 연결성 많은 쉽표를 하고, 광곽의 크기, 향자수, 어미표시 다음에는 연결성이 적은, 즉 독립성이 강한 마침표를 한다.

판식은 고서에만 있는 특수한 서지사항으로 비도서목록의 형태적 세목에 해당된다. 이 방법에 의하면 古書目錄에서의 판식은 삽도 다음에 쉽표를 앞세워 기재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ISBD의 구두법을 사용하는 목록에서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일례가 국립중앙도서관 제정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이다. 아직 이 규칙을 사용하여 작성한 古書目錄은 보지 못했으나 앞으로 그 규칙을 적용하여 편찬한 古書目錄이 발간될 것이다. 이 규칙에 수록된 목록작성례의 형태사항에 나타난 판식기재를 보면 아래와 같다.

3卷3冊：世系圖，四周雙邊 半郭 18.9×14.9 cm, 有界, 10行19字, 內向2葉花紋魚尾 ; 31.0×20.5 cm

이것은 판식을 완전히 삽도의 일부로 취급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판식을 삽도인 세계도 다음에서 쉽표를 하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고서나 古書目錄을 잘 모르는 다른 나라의 사서라면 누구나 이것은 특수한 삽도를 기재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세계도 앞에 사용한 쌍점은 누가 보아도 뒤에 기재된 모든 판식을 대표하는 부호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삽도가 없으면 광곽의 종류가 삽도자리로 당겨 와서 쌍점 다음에 오게 된다. 그러니까 삽도에

서 사용하는 선행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판식을 완전히 삽도사항의 일부로 취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古書目錄의 특성을 강하게 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판식은 古書目錄의 특성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항에 예속시키면 그 의미가 부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앞의 방법으로 판식을 처리한다면 별도의 古書目錄을 가지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다. 어쨌든 古書目錄의 특성을 살리려면 이 판식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식에서 독립적인 구두법을 사용하면 될 수 있다. 그것이 앞에서 이미 설명한 쌍점을 판식의 맨 앞에서 기재되는 흑구와 어미를 삽도와 별개로 사용하는 것이다.

2. 항자수, 어미, 계선, 광곽, 그 크기의 순으로 기재되는 판식의 구두법.

10行18字：上下內向花紋魚尾 界線 四周雙邊；183 X157mm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제2집)」)

여기서는 주기사항에서 판식이 기재되고 있다. 항자수의 기재가 맨 앞에 기재되는 것 외에는 그 순서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이나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고서목록의 판식기재 순서와 동일하다.

#### 4. 결 론

1980년에서부터 2000년 이전에 발간된 각종 古書目錄의 실태를 알아보고 판식기재 방법에 관하여 목록학적 입장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그 당시에 발간된 古書目錄을 조사하여 보니 60종정도이다. 이중 25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서지적으로 요점을 살펴보고 판식표시의 기재순서와 구두법의 부여 방법을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판식의 기재는 흑구와 어미, 계선과 항자수, 광곽의 종류와 그것의 크기 순으로 들쭉 짝 지워 기재하며, 구두법은 두 개씩 짝이 되는 앞 사항의 뒤

에는 쉽표를 하고 연결되는 사항을 기재하고 그 뒤에는 마침표를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는 것을 구명하여 보았다.

이렇게 판식을 기재를 하고 구두법을 부여하면 형태사항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또 판식의 중요도의 순과 正比例하므로 아주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金南碩. 「資料目錄學」. 第3增補版. 대구: 啓明大學出版部, 1996.
- 김태수. 「목록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9.
- 도태현. “한국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2.
- 白 麟. 「古書目錄規則」. 서울: 同大學校 附屬圖書館, 1966.
-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6(1967).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上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7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28권, 초판7쇄. 성남: 동연구원, 1994~96.
- 본문에서 직접 대상이 된 各種 古書目錄은 그 수량이 많아서 생략함.

к с і